meritz 조선/기계 Daily

2020. 10. 19 (월)

조선/기계
Analyst 김현
02. 6454-4861
hyun.kim@meritz.co.kr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 지수 126p, 중고선가 지수 86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6p(-), 중고선가 지수는 86p(-1p, WoW)로 전주대비 하락함. 대우조선해양이 2개의 선사로부터 Arc7 LNG선(쇄빙형 LNG선) 6척을 수주했고 인도기한은 2023년이라고 보도됨. 현대미포조선은 2척의 5만DWT급 MR탱커와 1척의 4만CBM급 LPG선을 수주했고 인도기한은 2022년이라고 보도됨. (Clarksons)

현대미포조선, LPG운반선 · PC선 3척 수주…총 1천400억원 규모

현대미포조선은 최근 싱가포르, 라이베리아 소재 선사와 각각 4만 CBM급 중형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1척과 5DW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힘. 각각 LPG 이중연료 추진엔진과 황산화물저감장치(스크러버)가 장착될 예정이며 인도는 2022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도됨. (연합뉴스)

Dyangas, 현대중공업 LNG선 Upsizing

Dyangas LNG Partners가 2019년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LNG선의 사이즈를 업그레이드했다고 보도됨. 2019년 5월 수주 당시, 계약 내용은 180,000CBM급 LNG선 2척으로 알려졌지만 발주처는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선박의 사이즈를 200,000CBM급으로 상향했다고 밝힘. 전세계적으로 해당 선박보다 큰 LNG선은 카타르의 210,000CBM급 Q-Flex와 265,000CBM급의 Q-Max밖에 없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이번에는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의 매각 예비입찰 마감일인 10월 26일을 앞두고 아직 원매자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됨. 인수 후보로 KDB인베스트먼트와 한국토지신탁 등이 거론되었으나 같은 업종인 조선업계에서는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도됨. 다만, 10년 간 매각 후보자를 찾지 못했던 대선조선이 최근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진중공업도 매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선박뉴스)

Northern Offshore jack-up starts drilling operations at Qatar's giant North Field

미국의 해양시추서비스업체 Northern Offshore가 카타르의 North Field 내 drilling operation을 시작했다고 보도됨. 최근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9월 초에 이미 jack-up 1기를 해당 spot에 배치시켰다고 보도됨. 해당 시추장비는 Northern Offshore가 Qatargas와 장기계약한 3기의 시추장비 중 첫번째 장비로 알려짐. (Upstream)

Schlumberger revenues slump in third quarter

COVID-19로 전세계 시추활동이 경색됨에 따라 Oilfield 서비스업체 Schlumberger의 3분기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도됨. 3분기 매출액은 52.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했다고 보도됨. 3분기 순손실은 8,2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Upstream)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